

보도시점 2024. 5. 26.(일) 11:00
5. 27.(월) 조간

배포 2024. 5. 24.(금) 16:00

15개 나라의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 그들의 목소리로 다시 알립니다!

- 농식품부, 외국인 대상 농촌방문 홍보를 위한 「2024년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또바기팍족”」 발대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함께 「2024년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또바기팍족” 20명을 선발하고, 지난 5월 24일(금)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응원단(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한다.

“또바기팍족”은 언제나를 의미하는 순 우리말인 ‘또바기’와 ‘팍(Farm)’, ‘족(族)’을 합성한 것으로, ‘언제나 농촌과 함께하는 가족’이란 의미를 갖는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의 공식 명칭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다양한 농촌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또바기팍족은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15개 국가에서 온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1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사회누리망(SNS) 인플루언서로서 올해 11월까지 우리나라 농촌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들은 단체 및 소그룹별 농촌관광을 체험하고 개인 사회누리망(SNS)과 또바기팍족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ttobagifarmfamily)을 통해 그 경험담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또바기팍족은 발대식 이후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정선의 덕우리 마을, 개미들 마을을 방문하여 사물놀이, 떡메치기, 정선5일장 문화탐방 등 다양한 농촌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이번 서포터즈 활동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토니(Tonny)는 “직접 경험한 한국의 농촌은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는 가기 어려운 한국의 농촌을 체험할 수 있어 행복했다. 올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사회누리망(SNS)에 농촌 관광지에 가는 방법, 매력적인 농촌의 경관, 인정이 넘치는 농촌 사람들과 소통하는 장면 등을 소개해 더 많은 관광객이 한국 농촌을 방문하도록 홍보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촌경제과장은 “농식품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 농촌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이번 8기 또바기팜족이 한국농촌관광의 글로벌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식 사진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정욱 (044-201-1581)
		담당자	사무관	김한승 (044-201-1592)



